

# 기업규모는 '1류' 안전관리는 '3류'

## 노동부, 대림산업 위법 1002건 적발 여수공장 폭발 전형적 人災 드러나

6명이 숨지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 공장의 안전 관리가 '총체적 무실' 상태인 것으로 정부의 특별 감독 결과 드러났다. 무자격자에게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긴 것을 비롯해 무려 100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3류' 안전 관리시스템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화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14일동안 폭발 사고가 난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에 특별감독관 20명을 투입해 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자격없는 안전 관리자의 안전업무 수행 등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등 508건에는 8억3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또 안전 벨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15종은 즉시 사용중지 조치했고,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별감독 결과, 대림산업은 무자격자에게 안전 관리 업무를 맡겼고 지난 3년간 4000만원 이상 132건의 공

사에 대해 하청업체에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 7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공사의 경우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하지만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공장설비 응접 작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작업 투입 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상조치요령 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폭발 사고 뒤 내려졌던 작업 중지 명령도 위반 사항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해제하지

않기로 했고 전주공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허술한 점검에 대한 지적도 거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대림산업 등 여수 산단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였지만 이 같은 사실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버스로만 2시간 걸리는 사업장을 고작 2명의 감독관이 돌며 안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고용부는 아울러 협력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적발된 256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사업주 2명을 처벌하고 8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2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라는 점에서 공장 책임자에 대해 '구속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 '상품권깡' 박광태 前 시장 비서실장 들기소

### 의전 담당 직원도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속칭 '상품권 깡'과 관련, 당시 비서실장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9일 김모씨 등 전 비서실장 2명과 전 의전 담당 직원 이모씨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은 모두 4명이지만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상품권 깡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기소되지 않았다.

추가 기소는 김씨 등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시장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반복한 태파른 것이다. 검찰은 예초 상품권 깡의 최종 이익을 박 전 시장이 누린 것으로 보고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

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공관에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관행 등에 따라 상품권 깡이 이뤄졌지만 시장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실제 박 전 시장이 몰랐다면 비서실장 등이 상품권 깡을 주도한 만큼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경우도 문제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비서실장 등은 박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증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이들의 진술이 주목된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와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 145차례에 걸쳐 20억 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고 현금화하도록 해 시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792) 김장두



## 여수 폭발사고 처벌 대상 소환

### 대림산업 공장장·유한기술 대표이사 등 12명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해 처벌 대상자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경찰은 9일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관련자 1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의 경우 공장장을 비롯, 생산팀·업무팀 등 9명, 유한기술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3명 등 총 12명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 10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의 경중 등을 따져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17명의 사상자가 난데다 고용노동부가 공장책임자에 대해 '구속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여수=김청희기자 chkim@



## 월남지구 임대아파트 착공

(208세대) 등 모두 654세대가 들어선다.

9일 광주시 동구 월남지구 임대아파트 착공식에서 박순국 국회의원, 노희용 동구청장·채명희 동구의회 의장 등이 착공식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부동선 침체로 5년 만에 재개된 월남지구 개발구역에는 79.3㎡(446세대)·99.1㎡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前씨름선수 폭행당해 한쪽 실명

### 배추밭떼기 유통업자 등 셋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추 밭떼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조직폭력배를 동원, 업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자 김모(60)씨와 조모(47)씨, 해남 십계과 조직원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동업자 김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해남의 한 호텔에서 배추 유통업자 장모(52)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20일 해남의 한 다방에서 전직 씨름선수 염모(37)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씨름대회 배추장사 출신인 염씨는 이틀로부터 사기 혐의로 연어맞아 한쪽 눈이 실명했다. 장씨의 사회 후배인 염씨는 장씨를 폭행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다 변을 당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청소년 10명중 1명 온라인 도박 중독”

### 도박치유센터, 중고생 2000명 설문

광주지역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도박 중독'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광주도박중독치유센터(이하 도박치유센터)는 9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게임도박문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게임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큰 '위험도박' 이상 청소년

비율이 11.9%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도박 중독 증상으로 반드시 전문상담기관 상담 등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성 도박'행동을 보인 청소년도 성인(1.3%)의 3배 수준인 3.8%에 달했다.

도박치유센터는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대내 기계게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도

조사 대상 학생들의 73%에 이른다 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돈내기 게임'은 'VIP포커'와 같은 스마트폰 게임(16.4%)인 것으로 나타났고 '불발 스포츠 토토'와 같은 온라인 사행성 게임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24%에 달했다.

한은경 도박치유센터 센터장은 “청소년이 도박 습관은 조기 예방과 선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맨홀 뚜껑 훔친 60대 구속

장성경찰은 9일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훔친 손모(6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손씨가 훔친 맨홀 뚜껑 처분을 알선한 김모(33)씨와 이를 사들인 고물상 업자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6월 초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장성·영광·화순·담양·광주 등지에서 67회에 걸쳐 농공단지·도로·농로에 설치된 통신훈 시설물인 맨홀 뚜껑 70~80개를 훔쳐 고물상 등에게 팔아치운 혐의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보험사 수당 행진후 해약

광주남부경찰은 9일 보험 대리점을 차려놓고 보험사 모집 수당을 행하고 해약한 혐의(사기)로 탐장 강모(34)씨와 보험설계사 정모(28)씨 등 6명을 불감자 조사 중이다.

강씨는 광주시 서구 처평동 한 건물에 A 보험대리점을 차려놓고 지난 2011년 9월 27일 친척 박모(60)씨 명의 보험회사 저축성 보험(월납 300만원)에 가입한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고 해약한 혐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차량 개조해 화물차 경우 훔쳐

○자신이 개조해 만든 1t 화물차를 타고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대형화물차의 경유를 훔쳐온 40대 남성이 최고량.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8)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용산동 한 공터에 주차된 탱크트럭에서 경유 360ℓ를 몰래 빼내는 등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경남 등지를 돌며 82회에 걸쳐 2만4600ℓ(4400만원 상당)의 경유를 훔친 혐의.

○이씨는 1t 화물차 적재함에 800ℓ 짜리 철제 연료통 3개와 자동연료펌프를 설치해 기름을 훔쳤는데, 훔친 경유는 지인에게 1ℓ당 1000원 가량에 판매.

/이종형기자 galee@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학**

#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기술, 고주파 지방분해 기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주치원 ● 고차 주치원  
● 대한생명 ●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대림의 사립외 의료광고심의필 제(89)3호-증-26호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구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구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임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뻐뻐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다치고 쉬기 등 나뉠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재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 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증-9819호 (광교)